

오상헬스케어, 연속혈당측정기 개발기업 알레 헬스에 1천만 달러 규모 후속 투자 집행

- ▶ 오상헬스케어, 알레 헬스의 최대 주주로서 제품 생산 및 글로벌 공급 계획
- ▶ 원가 절감을 통한 높은 가격 경쟁력과 FDA의 iCGM 규격 만족하는 제품 성능 보유
 - ▶ 중국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 1차 제출 완료
 - ▶ 2025년 미국 임상 준비중... 2026년 미국 FDA 승인 목표

[2024-11-05] 체외진단(IVD) 분야 국내 선도 기업 오상헬스케어(036220, 대표이사 강철훈)는 미국 연속혈당측정기 개발기업 '알레 헬스(Allez Health)'에 후속 투자금을 집행했다고 5일 발표했다.

알레 헬스는 2018년 텍스컴(Dexcom)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창업한 미국 벤처 기업으로 당뇨 관리 기술의 혁신을 목표로 연속혈당측정기(CGM,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를 개발하고 있다. 회사는 주요 연속혈당측정기 및 헬스케어 기업에서 R&D, 임상 및 인허가, 전략 및 마케팅 분야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레이프 보우먼(Leif Bowman)은 최첨단 혈당측정기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 기기를 성공적으로 출시한 경험이 있다. CTO인 로버트 부크(Robert Boock)는 미국 국립 보건원(NIH) 출신으로 Dexcom G4 CGM의 수석 개발자이며 CSO인 테드 장(Ted Zhang)은 Dexcom G4의 센서 멤브레인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며 CGM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오상헬스케어는 알레 헬스 창업 때부터 연구개발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였으며 지난 4월에 시리즈 A+ 투자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오상헬스케어는 전략적 투자자로서 총 4천만 달러(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포함)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도 기존에 투자한 전환사채 2천만 달러를 주식으로 전환하며 힘을 보탰다.

오상헬스케어의 이번 투자는 지난 시리즈A+ 계약 당시 납부하기로 한 2회차 금액에 해당하며 마일스톤 달성에 따라 1천만 달러 규모를 납부하였다. 오상헬스케어는 알레 헬스의 최대 주주로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로 제품 생산은 물론 전 세계에 오상 브랜드로 제품을 공급할 방침이다.

미국 워싱턴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약 5억 2,900만 명에 이르는 글로벌 당뇨병 환자 수가 2050년에는 13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뇨병 유병률도 6.1%에서 2050년 9.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 환자는 식습관 변화와 고령화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연속혈당측정기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혈당 수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의료기기로 인정받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일부의 사람들만 혜택을 누리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비용이 크게 감소했지만

보험 적용이 없다면 여전히 연간 약 2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많은 환자가 가격과 성능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오상헬스케어와 알레 헬스가 개발하고 있는 연속혈당측정기는 최초 컨셉 단계에서부터 제조 단계에 이르기까지 원가절감에 초점을 맞춘 독자적인 설계로 경쟁사 대비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능 측면에서도 ▲긴 센서 수명(15일) ▲칼리브레이션 불필요(Factory Calibration) ▲인슐린 펌프 등과 연동 가능 등 FDA가 규정한 iCGM 규격을 만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알레 헬스는 현재까지 45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였으며 상용화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중국 국가약품감독 관리국(NMPA)에 1차 서류를 제출 완료하였으며 2026년 미국 FDA 승인을 목표로 2025년 미국 임상을 준비하고 있다.

오상헬스케어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 선진 시장인 미국에서 다년간 평가받았고, 최근 진행한 임상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주요 국가에서의 인허가와 판매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알레 헬스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레이프 보우먼은 “연속혈당측정기는 20년이 넘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일일 사용 비용으로 접근성이 제한적”이라며 “우리의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연속혈당측정기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